소월의 ‘초혼’은 아니어야 한다

(시편 48:1~14)

1.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2.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3.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4.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여
5.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6.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7.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8.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소월의 ‘초혼’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소월의 ‘초혼’은 아니어야 한다.
‘초혼(招魂)’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 번 부름으로서 혼을 부르는 전통의식입니다. 시인 김소월은 이에 착안하여 1925년에 ‘초혼’이라는 시를 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가 소월의 초혼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시는 다섯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째 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虛空中)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主人)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름에는 반드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름만 남고 존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에 맞는 존재가 나타나거나, 내가 그 존재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존재를 갖지 못한 이름은 아무리 불러보아도 허공에 흩어지고 맙니다. 존재가 사라지고 나니 허무함만 남습니다.

둘째 연에서는 그 깊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중(心中)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셋째 연에서는 피폐해진 마음이 드러납니다.

붉은 해는 서산(西山)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山)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산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화자는 그 위에 앉아있고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린 것을 봅니다. 해가 질 때는 하던 일을 멈추는 때입니다. 화자는 아예 삶의 현장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대가 없어서 삶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연에서는 설움에 복받쳐서 이름을 부릅니다.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그대가 없음이 그립고 너무나 서러워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소리는 모든 장애물을 피해서 얼마든지 퍼져 나가는데, 그대가 있는 하늘과 내가 있는 땅 사이가 너무 넓어서 그 존재를 만날 수 없기에 좌절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연에서는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비장함이 돋보이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망부석의 모티브를 통해서 비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허무와 아쉬움과 좌절과 피폐함과 비장함이 너무나 멋지게 표현되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망자에 대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또한 마지막 연의 비장함을 통해 그 대상이 김소월의 이상적 지향점이자 인생의 궁극적 목표점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산산이 부서진 이름 /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 /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장기판의 장기 알을 움직이듯이 함부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데 김소월의 초혼에서처럼 실제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8편은 이름 부르기 하나를 잘 했더니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거나 대단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름만 잘 불렀을 뿐입니다.
본 시는 43편 46편 87편 122편 등과 함께 시온을 찬양하는 시온시로 불립니다.
시온산은 해발 790미터의 산인데 예루살렘이 그 시온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동일시합니다. 이 시온산의 옛날 이름은 모리아산으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곳이기도 하며,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시온을 찬양하는 시는 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이나 13대 왕 히스기야 때의 국가적 위기를 하나님의 개입으로 기적적으로 극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고라 자손의 시임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히스기야 때보다 여호사밧의 시대로 여겨집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의 연합군이 쳐들어 왔을 때에 성전에 모여 온 백성이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리고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음 날에 여호사밧 왕이 적군들을 향하여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고라자손은 본래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시를 지은 고라자손도 이 성가대에 참여했던 자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군대보다 앞서 적군이 진을 친 드고아 뜰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모래알 같은 연합군을 패하게 하시고 내분이 일어나 자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절할 일 아닙니까?
역대하 20장 21절에 “…성가대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 감격을 담아서 쓴 시입니다.

그러한 본문이 시온시로 분류될 만큼 시온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온 천하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시온 산에서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 산에만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온에서만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한다고 국한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왕상9:3) /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왕상11:36) /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대하7:20, 왕상9:7) /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왕하21:4, 대하33:4)”이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택하신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수없이 반복하시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택하신 곳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선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반드시 성전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의식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김소월 시인의 초혼에서처럼 이름 부르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공중에 흩어져버릴 수밖에 없는 주인 없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름 부르기의 핵심은 성소와 번제단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법궤가 안치된 지성소가 있고, 분향단과 떡상과 등잔이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소와 번제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내 마음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시스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름 부르기는 김소월의 초혼에서의 이름 부르기와 같은 허무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하려면 성전에 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이 말은 곧 성전 시스템을 거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어디에 있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성전을 기억함으로서 번제단과 지성소와 성소를 거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만남은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선민에게 만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만남을 위한 가능성으로 첫 번째 언급하신 것이 상번제입니다. 42~4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단에서 상번제를 드릴 때에 만나 주십니다.

상번제는 곧 나를 죽는 양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성전은 우리의 마음을 형상화 한 것으로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을 붙잡습니다. 그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이 바로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도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돈이나 건강 같이 긍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들 또한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연합군을 무찔러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연합군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것을 더 우선적인 현실로 붙잡은 것이고 더 힘센 것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는 이 세상 것이 내 마음에 우선적이고 현실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현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다고 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보다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난 사건들이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내 안에 우선적인 이름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러한 나를 번제단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와 성소의 모습을 통해 마음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지금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배 부르려는 상태도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적군들이 없어야 내가 기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잘못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기쁨과 만족은 적들이 없어져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믿음을 군대 앞에 성가대를 앞세우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드고아 뜰에 진을 친 대적들보다 우선시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 적들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일은 군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우선적인 현실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모여 금식하면서 성전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사건을 경험한 고라자손이 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시온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되십니다. 적군이나 풍전등화의 나라의 위기보다 하나님이 우선적 현실이 되시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비록 성전으로부터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 있을지라도 성전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랬던 것과 같습니다.
2절을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라는 기가 막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온 산의 터가 높아봤자 해발 790미터입니다. 온 세계에는 이 산 말고도 높은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인류가 살아가는 지구의 랜드마크입니다. 지구 표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몸은 어디에 있든지 마음으로 이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육체로 성전 뜰을 밟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 마음이 성전을 기억함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온 세계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을 보면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라고 나옵니다. 시온 산은 이스라엘 영토의 중간쯤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시온산보다 북방에 있는 산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온산을 북방에 있다고 표현한 것은 출애굽 시절에 기인합니다.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초혼에서 나오는 망자를 향한 그리움을 넘어서는 그리움으로 가나안 복지를 열망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복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나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복지를 복지되게 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방의 산'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가며 열망하게 되는 궁극적 복지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비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의 궁극적 비전은 바로 성전을 바라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궁극적 비전으로

제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전의 의미를 완성시키셨습니다. 마음이 이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초혼의 마지막 연을 보면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 채로 돌이 될 각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전념해야할 것입니다.
위기와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골똘히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오늘 시를 지은 고라자손의 감격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의 완성이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마음이 따라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차지해 버린 마음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고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거쳐야합니다. 세상이 들어 찬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난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때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늘 시편에서 고라자손이 경험했던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돌이 될 각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이나 판단분석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에 전념하되, 초혼의 이름 부르기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의 길을 마음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고라자손처럼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너무나 존귀하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김소월의 초혼에서처럼 함부로 불러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름 부르기를 위한 시스템을 기억하여 백분 활용함으로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